

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에 연탄 및 생필품 전달
- 정성을 모아 사랑의 온기(溫氣) 전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연말을 맞아 4일 대전광역시 동구 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여 명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600장의 연탄을 한 장 한 장 직접 나르고, 쌀·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완규 처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고 일상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곽경림	(044-200-6521)
		담당자	사무관	유선열	(044-200-6522)